

9장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

? 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 위격으로 계시고 일하시는가?

성경은 구약의 말씀·지혜·영에서 신약의 성부·성자·성령으로 삼위일체를 드러낸다. 교회는 아리우스주의와 사벨리우스주의를 물리치며 한 본질, 세 위격의 교의를 세웠다. 세 위격은 나시지 않음·나심·나오심이라는 영원한 관계로 구별되며 본질은 하나다. 창조·구속·성화는 각각 성부·성자·성령께 돌려지지만 외적 사역은 나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며 그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용어 먼저

위격	세 분이 양태가 아니라 각자 구별된 존재라는 뜻
본질(우시아)	삼위가 온전히 공유하는 하나의 신적 존재
영원한 나심	성자가 성부의 뜻이 아닌 존재에서 영원히 나심
나오심(발출)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숨처럼 나오심
필리오케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는 서방의 고백
경륜적 삼위일체	창조·구속·성화에서 드러나는 삼위의 역할 구분
선택(예정)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으로 구원할 자를 정하심

구조도 · 삼위일체에서 경륜까지



핵심 주장

- 삼위일체 교의의 모든 내용은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왔다.
- 필론과 요한은 '로고스'라는 말만 같을 뿐 뜻은 전혀 다르다.
- 그리스도는 직임에서는 성부께 복종하나 본질에서는 성부와 동일하시다.
- 성령이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를 전해 주실 수 있다.
- 성경 밖 용어는 새 교리가 아니라 이단을 막는 경계선이다.
- 성자의 영원한 나심은 하나님이 고독한 분이 아니라 총명한 생명이심을 보여 준다.
-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비출 뿐 대체하지 않는다.
- 선택은 예견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원인이다.

성경 근거

창 1:2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셋째 원인이다
민 6:24-26	대제사장 축도에 담긴 삼중 계시
마 28:19	세 주체가 하나의 이름 안에 계시됨
골 1:15	먼저 나신 이, 피조물이 아니심
요 15:26	성령이 아버지께 나오시는 인격이심
요 5:26	성부가 로고스 안에 생명을 두심
롬 11:36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돌아감

오해 → 바른 이해

× 성자는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이다(아리우스)	✓ 성자는 성부의 존재에서 영원히 나신 참 하나님
× 성부·성자·성령은 한 분의 세 모습일 뿐이다	✓ 세 위격은 양태가 아니라 구별된 실재다
× 하나님은 믿을 사람을 미리 보고 택하셨다	✓ 선택이 믿음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 삼위는 역사 속에서 차례로 생겨난 세 시기다	✓ 시간 속 보내심은 영원한 관계의 반영일 뿐

“한 본질 세 위격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

☞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자와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가?

☞ 내 구원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왔음을 믿고 있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